

문화공감 2015 <1>클래식 대중화 나선 광주시향

‘클래식 토크’에 초등생 위한 ‘뮤직 도슨트’까지

2015년 새해가 밝았다. 문화계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바빠 움직이고 있다. 지역 문화계를 풍성하게 할 올 한해 다양한 움직임들을 소개한다.



무료 클래식 해설로 공연전 관객과 소통 16일 신년 음악회 첼리스트 장우리 협연



장우리

신시아



서울시향과 대전시향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는 정기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 진행되는 해설 프로그램이다. 클래식 전문가와 함께 그날 연주할 레퍼토리를 미리 공부하고 만나는 연주회는 또 색다른 느낌을 준다. 광주시향교향악단(상임 지휘자 이현세)이 올해 시민들이 클래식과 좀 더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새해 목표로 클래식 음악 감상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시향의 프로그램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전문가의 해설로 당일 연주 레퍼토리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는 ‘클래식 토크’는 대극장 공연이 열릴 때마다 오후 6시20분부터 7시10분 까지 회관 리셉션 홀에서 열린다. 강의를 맡는 이는 최유준(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감성인문학 연구단 HK연구교수)씨와 작곡가 한경진(전남대 음악학과 교수)씨다. 당일 공연 티켓을 구입한 사람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미래 클래식 관객들에 대한 교육도 이어진다. 지난해 하반기 ‘청소년 워크북’을 제작했던 시향은 초등학생(개인과 단체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뮤직 도슨트’를 운영한다. 도슨트가 미술관에서 작품 감상을 돕듯, 뮤직 도슨트는 음악을 처음 접하는 꼬마 관객들이 클래식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대극장 공연 당일 오후 4시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공연 전 청소년 워크북을 함께 공부하고 공연장 투어, 에티켓 공부 등을 하며 식사(자비 부담) 후 연주회 관람으로 마무리한다. 시향은 또 올해부터 ‘월간 GSO’도 발행한다. 지금까지 매 연주회 때마다 제작했던 형식적인 팸플릿 대신 시향의 한 달 공연을 한 데 묶고 다양한 해설을 함께 실었다. 올해 첫 권은 1월과 2월을 함께 묶어 발행했다. 해당 공연 레퍼토리 및 음악칼럼니스트 김문경씨 등이 1, 2월 공연작인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9번’ 등에 대해 해설했다.

클래식 토크와 뮤직 도슨트 모두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신년 음악회가 첫 출발이다. 김영연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신년음악회에서는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으로 문열 열며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가 피날레를 장식한다. 협연자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뽑힌 첼리스트 장우리씨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세대를 거쳐 자브리켄 국립 음대에서 수학한 장씨는 이날 공연에서는 열가의 ‘첼로협주곡’을 협연한다. 이현세 지휘자가 함께하는 11시 음악회도 눈길을 끈다. 비발디의 ‘사계’ 중 봄, 베토벤 교향곡 ‘전원’ 스메타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등을 만나서 프로그램이다. 시향은 또 지역 출신 음악가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성인 연주자를 대상으로 관·현악 부문 오디션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오는 2월 대학생을 대상으로 피아노 부문 협연자를 공모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빛가람’에서 ‘빈’으로... ‘러시아’로 음악여행

<1월 21일> <2월 27일> <6월 12일>

광주시향 상반기 공연

광주시향은 올해 상반기 공연 일정도 함께 발표했다. 신년음악회에 이어 21일에는 나주 한전 아트홀에서 ‘빛가람 신년음악회’(클라라 주미 강 협연)를 진행하며 2월 10일에는 빛고을시민회관에서 ‘재미있는 20세기’를 주제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9번’ 등을 연주한다.

‘빈의 저녁-가족음악회’(2월 27일),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을 만나는 ‘마스터 피스 시리즈-원정’(3월20일), 그림자 극단 ‘영’과 함께하는 ‘보고 듣는 명품 클래식’(5월8일), 베토벤 ‘운명’, 브람스 ‘비극적 서곡’이 연주되는 ‘5·18 기념음악회’(5월18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6번’을 만나는 ‘러시아 음악기행’(6월12일) 등이 대거중이다.

협연자로는 피아니스트 김다솔·이효주, 더블베이스 연주자 성민재, 바이올리니스트 신시아·이 마리술·김다미, 첼리스트 이정란씨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4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15 교향악 축제’에 시벨리우스 ‘교향곡 1번’으로 참여하며 서울 공연 전인 4월 3일 광주문화예회관에서 프리뷰 공연을 갖는다. 문의 062-524-5086.

“동시로 노래하는 아이들 많아지길”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김성범 동시집 ‘호랑이는...’ 펴내

동요 음반도 수록

“오늘도 시를 쓰러 나간다. 도깨비 숲 길을 지나 삼진강으로 간다. 어떤 날은 눈을 슬며시 감고 큼큼 향기를 따라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눈을 크게 뜨고 숲을 살살이 뒤져보기도 한다.” 광주일보 신춘문예(2001년 동화) 출신 김성범 작가가 동시집 ‘호랑이는 내가 맛있다’(상상의 힘)를 펴냈다. ‘삼진강 도깨비마을’ 총장이기도 한 김 작가는 어린이들이 시를 노래로 부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동시집을 발간했다고 한다. 동시집에는 그동안 지은 시에 곡을 붙인 동요 음반이 수록돼 있다. 사실 예전에는 시와 노래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시와 노래가 분리되면서 어린이들 정서가



메말라가기 시작했다. 김 씨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 서로 자연의 소리를 보고, 듣고, 느껴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업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아동문학평론가는 “김 작가가 첫 번째 내는 동시집에는 다양한 실험이 펼쳐져 있다”며 “동시 특유의 사물을 보는 새로운 관점과 자잘한 삶의 일상 속에서 깊어 올린 해학이 돋보인다”고 평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

‘양림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융성 우수사례 선정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이 지난해 추진했던 ‘공공미술 2.0 양림성장형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문화융성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문화융성위원회가 실시한 이번 우수사례공모전은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1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다. 이 결과 서울 문래동예술창작촌이 최우수(1등), 양림공공미술프로젝트는 우수사례(2등)로 최종 선정됐다. 양림 성장형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1년간 주민주도로 진행된 실험적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

다. 또 양림동의 주택을 개조해 주민장착공방 ‘도금도금 공방’을 만들어 주민공방교실을 운영했다. 양림동의 다양한 건물과 풍경, 인물상을 담은 도자기 컵·접시, 나무 조각품 등이 수강생인 주민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 9~10월 5차례 진행된 양림아트마켓에서 그 물건들은 모두 팔렸다. 이 밖에 ‘양림스토리탐험대’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매 주말을 양림동에 헌납하고 발품을 팔아 양림동 숨은 이야기들을 발굴했다. 탐험대의 탐사 결과를 담은 자료집 ‘양림을 걷다’도 펴냈다. 문의 062-670-749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완도 출신 김석윤 첫 시집 ‘타르초 깎는 남자’ 펴내

완도 출신 김석윤 시인이 첫 시집 ‘타르초 깎는 남자’(문학들)를 냈다. 2009년 ‘21세기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섬세하고 우직한 태도로 사물과 사건을 응시한다. “벼랑길에 그랬듯/ 느닷없이 끊긴 길, 침 묻혀 이어 가며/ 글 한 줄 모르는 까마귀노르/ 줄줄이 경전 위에 낸다.”(‘타르초 깎는 남자’ 중에서) 제목부터 눈에 띄는 표제작 ‘타르초 깎는 남자’는 티베트 경전 깎발을 엮어 내는 사내의 일상을 다룬다. 글을 모르는 사내의 전직은 차마고도를 넘는 마방이었다. 그런 사내가 직업을 바꾼 뒤

“바람 잘 날 없는 생”을 “바람이 경전을 읽고 가는 소리”로 환치해 바라본다는 시적인 설정은 여느 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적인 울림을 준다. 시인은 특별한 형식 실험이나 화려한 수사보다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손남훈 문학평론가는 김석윤의 시를 일컬어 “모든 스러져 가는 존재들의 고통을 증언하는시”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

착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위해
직접 검증하다!

먹거리 X파일

매주 금요일 밤 11시

MC 김진 채널A기자

http://tv.ichannela.com/culture/xfile
02 2020 3333~4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